불교시민사회, '오구라 컬렉션' 환수 나선다

문화유산회복재단, 8월 12일 환수위 발족

오구라, 일제강점기 당시
불상 등 1100여 점 반출
"20년 내 전부 환수 목표"
1만인 동참 등 저변 확대

유재상 충청지사장



문화유산회복재단은 8월 12일 아산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에서 불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오구라 컬렉션 환수위원회'를 발족했다.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오구라 컬렉션'을 환수하기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8월 12일 아산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에서 '오구라 컬렉션 환수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불법 반출한 문화유산이다. 그는 불교 유물, 서화, 복식, 고대 유물 등 한반도의 중요 문화유산을 닥치는 대로 수집해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그 수량만 1100여 점에 달한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 도쿄박물관에 수장돼 있으며 이 중 39점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됐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환수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을 상임대표로, 김경임 전 주튀니지 대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을 비롯해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한수 전 배재대 산학부총장, 강경숙·박수현·문진석·정춘생 국회의원, 박영순 전 국회의원, 안정헌·김민수·김연·이공휘 충남도의원 등 각계 인사가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상임대표는 "오구라 컬렉션은 한국사의 정수를 담은 불법 반출 문화유산이다. 부여 금강사지 출토 금동약사불 소송을 시작으로 1030점 전부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들의 결의도 이어졌다.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최재형 선생과 러시아 항일운동사를 소개하며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운동은 현재의 독립운동"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해외 문화유산 환수 법률 제정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고, 강경숙 의원은 "문화유산 환수는 우리의 정신과 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역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한수 전 배재대 산학부총장은 "교육자로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무관심을 사죄한다. 시민과 함께 법률·외교·교육을 아우르는 환수 모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환수위원회는 향후 △시민 참여 확대('1만인 동참') △국내외 소장처와의 협의 채널 발굴 △법률·정책 개선 제안 △학교·지자체와 연계한 교육·전시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관장 남종석)은 광복 80주년과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9월 12일까지 '광복 80년, 한일협정 60년, 미래세대의 온전한 문화주권 완성을 위한 광복 100년의 준비'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지친 교사들 마음을 어루만지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직무연수 성료
8월 4~11일 30시간 교육
마음 치유 · 성찰의 장 마련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괜찮지 않아도 돼!'를 주제로 교사직무연수를 개최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괜찮지 않아도 돼!'를 주제로 교사직무연수를 성료했다. 교육은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에 이어 11일에 4시간 등 총 30시간 동안 진행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교사직무연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첫날에는 △고정관념 내려놓기 △괜찮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나 찾기 △마음을 여는 대화 등이 진행됐다. 저녁에는 죽음과 삶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고백' 프로그램이 열려 참가자들이 진솔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

둘째 날에는 △마음의 활용과 원리 △무지의 자각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등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이어진 촛불명상에서는 마음속 본래 밝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에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변화하는 나 찾기 등을 통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실천 나누기'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연수에서 얻은 깨달음과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공유하며 연수를 마무리했다.

한 참가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달려오느라 제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 연수에서 저를 위로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마음이 힘들 때 내려놓고 중심을 잡는 방법을 배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실천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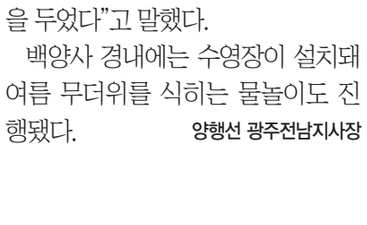
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가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재충전하고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앞으로도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교사직무연수를 개최할 방침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양사 '제4회 백양아이 명상캠프' 성료

8월 9~10일, 50여 명 참석
오감으로 배우는 불교와 명상
싱잉볼 · 연꽃차 체험 등 다채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4회 백양아이 여름 명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지도법사 진선·동호·능견·형진 스님 등 5명의 스님과 지도교사 15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 47명이 함께했다.

9일 백양사 교육관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어린이들은 사찰 예절과 캠프 예절을 배우며 마음가짐을 다졌다. 올해 캠프는 '우리 지금 당장 만나'를 주제로 △오감명상 △백양 워터피아 △레크리에이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마음 나누기 △어린이 수계식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감명상'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명상 체험으로, 싱잉볼 명상과 연꽃차 다도명상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은 명상 호흡을 배우고 연꽃차를 보고 향기를 맡고 맛보며 오감으로 느꼈다. 이어 티베트 전통 수행 도구인 싱잉볼을 이용해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을 보니 스님의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진다"며 "다투지 말고, 고운 말을 쓰며, 어른과 스승의 말씀을 잘 듣고, 맑고 밝은 얼굴로 회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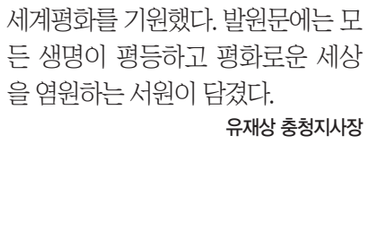
지도법사 능견 스님(동국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최근 아이들이 과도한 학습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명상캠프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 건강 증진을 목표로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백양사 경내에는 수영장이 설치돼 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물놀이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세종충남종무원, '예수재' 봉행

8월 9일, 홍주문화체육관서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기원
상진 스님 "평화 씨앗 심자"



태고종 세종·충남종무원(종무원장 원철 스님, 홍성 관음사 주지)이 8월 9일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 특별대도량에서 '세종·충남 예술제'로 '예수시왕생칠재'를 봉행했다.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안과태평의 선업 성취를 발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원로의원 원철·동우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법연 스님을 비롯해 세종·충남 종무원 회원 사찰 스님들과 이용록 홍성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지역 단체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보길 스님의 집전과 법인 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봉행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운의식은 영산재 이수자인 미건 스님의 집전으로 영산재 회원들이 함께 봉행했다.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예술제는 불교문화와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져 대중의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와 화합의 씨앗을 심는 법석"이라며 "참여한 모든 분의 원력이 모여 사회와 세계에 밝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충남종무원장 원철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번 법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중생 구제의 서원을 다지는 자리"라며 "세종·충남 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봉행된 예수시왕생칠재는 돌아가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전통 불교의식으로, 불자와 시민들이 동참해 가족과 조상, 유주무주의 고혼을 천도하고, 나아가 국태민안과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발원문에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서원이 담겼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신흥사, 생전예수재 회향법회

8월 8일, 대웅전서 봉행



울산 신흥사(주지 인경 스님)는 8월 8일 대웅전에서 '백중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난 7월 말 입재한 생전예수재의 대미를 장식한 이날 법회는 △사자단 권공(관욕의식) △관욕단 살풀이(박옥란 명인) △지장본원경 제56품 독송 △약례권공 △상단 축원 △고사단·마구단 동시권공 △관음시식(창혼권반게) △영가단 극락무 △관음시식(장엄염불) △상·중·하단 봉송 및 소전 의식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관욕 의식에서 인경 스님은 "관욕은 영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수행"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모든 공덕이 영가와 대중에게 두루 회향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정법사, 백중 가사불사·승보공양

8월 9일, 1200여 명 운집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백중기도 기간인 8월 9일 만불보전에서 통도사 율원 스님들을 초청해 '가사불사·승보공양'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통도사 전계사 율주 덕문 스님, 율원장 도암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200여 명이 운집해 장엄한 공덕의 장을 이뤘다.

가사공양에서는 사중 스님 7명과 영축불교대학 강사 영산 스님(창원 안국사)을 포함한 총 23명의 스님께 공양했다.

정법사는 이날 통도사 율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보시했으며, 백중 회향 후 산청 호우 피해 지원금 1000만원과 백미 3000kg을 회향할 예정이다.

광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생전예수재를 통해 살아생전 업장을 참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용문사, 어린이 여름템플스테이

8월 2·9일, 30여 명 참여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템플스테이'를 2회에 걸쳐 개최했다.〈사진〉 8월 2일 열린 1차 프로그램에는 10여 명, 9일 진행된 2차 프로그램에는 2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주지 승원 스님은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부처님과 불교, 그리고 절과 인연을 맺어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마다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 어린이들은 지도법사 법명 스님과 지도교사의 인솔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동안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지장정사, 지역에 백미 나눔

8월 11일, 남구청 등에 전달



울산 지장정사(주지 현우 스님)는 8월 11일 지역사회에 백미 210포를 전달하는 자비나눔을 실천했다.〈사진〉

이번 자비나눔은 생전예수재 동참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해 이뤄진 것으로, 울산 남구청과 남부경찰서, 지역 복지시설, 미혼모·미혼부 가정 등에 총 20kg 백미 210포가 전달됐다. 남구청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백미 100포를 저소득 가정 등에 배포하고, 남부경찰서는 백미 50포를 피해자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지 현우 스님은 "생전예수재의 공덕은 나와 남, 살아 있는 이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에게 회향되는 것"이라며 "신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백미가 이웃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어려운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지역민과 '팥빙수 축제'

8월 13일 대인동 주민 400명에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8월 13일 광주 동구 들랑날랑커뮤니센터에서 2025 빛고을관등회 공동체 프로그램인 '대인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원달콤 팥빙수 축제'를 열었다.〈사진〉

동구청과 자비신행회가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스님과 신도들은 대인동 쪽방촌 어르신과 시장 상인, 주민 등 400여 명에게 여름철 별미인 팥빙수를 직접 전달하며 시원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더운 여름, 일상에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시원한 팥빙수를 선물하게 되어 기쁘다"며 "건강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